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 참석하시어 소년단대표들을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가 6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대회장인 4.25문화회관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소년단대표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대회장주석단에 나오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소년단원이 붉은넥타이를 매여드리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을 모시고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를 진행하게 된 크나큰 환희에 넘쳐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온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소년단대표들이 향기그윽한 꽃바구니를 삼가 드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끝없는 격정의 환호를 울리는 소년단대표들을 축하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대회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조선소년단기를 든 학생들이 대회장에 입장하였다.

《소년단행진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소년단기가 게양되었다.

전체 소년단대표들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선창에 《항상준비!》라고 힘차게 화답하며 소년단경례를 하였다.



《김정은원수님 발걸음따라 앞으로》의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을 담아 소년단대표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울리고 붉은넥타이를 매여드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는 조선소년단을 영원히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

《김정은장군찬가》 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었다.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토의되었다.

1. 소년단원들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 소년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하여
2. 조선소년단규약개정에 대하여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이어 둘째 의정 《조선소년단규약개정에 대하여》가 토의결정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회에서 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소년단대표들과 온 나라 소년단원들을 축하해주시고 주체적소년운동의 전성기를 펼쳐나가는 데서 강령적인 지침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에 넘쳐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대회에서 전체 소년단대표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주체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억세게 준비해나갈 일념을 안고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의 선창에 화답하며 충정의 맹세를 다지었다.

다고 하시면서 항일아동단의 전통, 백두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 청년동맹의 참다운 교대자들로 튼튼히 준비해가는 300만 소년단원들의 기상을 만방에 과시한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회참가자들이 우리 혁명과 주체적소년운동발전의 요구에 맞게 소년단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며 조선소년단을 지덕체의 룡마라고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해가는 백두산대국의 미래의 주인공들의 대오로 억척같이 다져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지상대 해상순항로켓시험발사를 보아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타격을 기도하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지상 는 적함선집단을 지상에서 마음먹은대 대해상순항로켓시험발사를 보아주시 로 타격할수 있는 강위력한 공격수단 었다. 이다.

출중한 령도력과 결단력, 드센 배짱과 이번 시험발사는 새로 개발한 신형지상 담력으로 세상을 놀래우는 사변을 려이어 대해상순항로켓의 전술기술적제원들과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며 로켓과 무한 지도를 받으며 군사강국의 높은 령마루를 케도식자행발사대차를 비롯한 무기체계 향해 신심드높이 비약해나가고있는 국방 전반에 대한 전투적용효과성을 검증하는 과학원에서는 기존의 무기체계보다 기술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력을 보다 향상시킨 신형지상대해상순항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에서 새 로켓을 새로 연구개발하고 첫 시험발사 로 개발한 신형지상대해상순항로켓의 를 진행하게 되었다. 전술기술적제원을 료해하시고 시험발사

얼마전 태양절경축 열병식광장을 요 를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었다. 란하게 누벼간 다종화된 타격수단들중 발사된 순항로켓들은 정확하게 선회 의 하나인 신형지상대해상순항로켓 비행하여 조선동해상에 띄워놓은 목표선

을 탐색하여 명중하였다.

고있는 신형지상대해상순항로켓을 출 신형지상대해상순항로켓시험발사를 룡히 연구개발하고 시험발사를 성과적으 통하여 무한케도식자행발사대차에서의 로 진행한 국방과학원의 일군들과 과학 순항로켓의 발사관리타특성과 발동기 자, 기술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 들의 시동특성, 초저공순항비행체제에 었다. 의 신속한 진입특성들을 확증하였으며 초 저공장거리순항비행체제에서의 비행안정 성, 여러가지 비행경로에 따르는 기동특 성, 탄상복합유도머리의 목표포착 및 유 도정확성, 적아식별특성, 목표진입시 급 격한 고도이행능력을 검토하였다.

발사준비과정에 새로 개발한 무한케도 식자행발사대차의 기동특성, 전투진지에 로의 진입과 신속한 사격준비, 발사조종 계통들의 동작민음성도 검토확증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에서 중시하

본사기자

사 설

6. 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자주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자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 이 채택발표된 때로부터 어느 덧 17돛이 되어오고있다. 세월 의 흐름은 망각을 동반한다지 만 오늘도 우리 겨레는 력사적 인 평양상봉과 6.15시대의 감 동적인 나날들을 잊지 못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6.15북남공동선 언의 채택은 북남관계와 자주 통일위업수행의 길에서 획기적 인 전환의 국면을 열어놓은 민 족사적사변이었다.

반세기이상 불신하고 대결 하던 북남관계는 6.15를 기 점으로 화해와 단합, 협력의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고 온 민족이 떨쳐나서 통일의 앞 길을 열어나가는 격동적이고 활기찬 자주통일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오랜 세월 격폐되었던 북남사이에 하늘 길, 땅길, 바다길이 열리고 막혔던 민족의 혈맥이 열려 통일열기가 온 삼천리에 가득차게 되었다. 우리 민족끼 리가 민족공동의 통일리념으 로 되고 당국과 민간의 각이 한 급, 각이한 계층에서 대화 와 접촉이 활발히 진행되었 으며 민족경제의 통일적발전 과 번영을 위한 협력의 동음이 힘차게 울려 퍼졌다. 통일운동은 소수의 운동으로부 터 다수의 운동으로, 온 겨레 가 참가하는 거족적인 운동 으로 확대강화되었다. 겨레 가 사는 모든 곳에서 통일합 성이 울리고 국제체육무대에 서도 북과 남이 서로를 응원 하는 통일응원의 열기면 합성이 경기장들을 뜨겁게 달구곤 하였다.

이 놀랍고도 사변적인 격동 의 6.15시대를 펼쳐주신분은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 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의지와 대응단에 의하여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두차례 의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고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발표된것은 자주 통일의 력사적리정표를 마련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 은 특기할 사변이었습니다.》

선군의 억센 힘으로 미국 을 제압하시고 조국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놓으신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자주통일 의 새 시대를 펼쳐실 웅대한 구상과 작전을 펼치시고 몸소 평양상봉을 성공적으로 이끄시 어 세기에 길이 빛날 6.15북남 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시었다.

겨레의 가슴마다에 자주통 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 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안겨주신 장군님께서서는 탁월 한 선군정치와 친리혜안의 예 지, 넓은 포용력과 뜨거운 동 포애로 6.15시대의 전진을 가 로막아나서는 내외반통일호전 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북남 관계가 자주통일의 대로를 따 라 줄기차게 나아가도록 떠밀 어주시었다.

그 나날에 력사적인 평양상 봉이 또다시 마련되고 10.4선 언이 채택발표된것은 조국통일 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었다.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을 마련해주시고 자주통일 의 새시대를 이끌어오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와 민 족앞에 쌓아올리신 영원불멸할 업적으로 된다.

6.15의 기치밑에 전진하던 북남관계와 자주통일시대가 리명박, 박근혜침미부수 《정

권》들에 의하여 중대한 압초 를 만나고 좌절과 우여곡절을 겪게 된것은 우리 겨레에게 있 어서 참으로 불행스러운 일이 었다. 북남공동선언을 전면부 정하면서 《체제통일》의 더 러운 망상에 들며 6.15의 공 든 탑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외 세와 함께 동족대결수동에 매 달린 역적패당들에 의해 북남 관계는 다시 수십년전의 대결 시대로 돌아가고 초포란이 오 가는 살벌한 관계로 되었으며 조선반도의 정세는 전쟁점경 의 최극단에도 흐르게 되었다.

6.15시대의 감동적인 나날들 과 그 이후 펼쳐진 살벌한 북 남관계사는 6.15를 지키면 통 일이고, 잃으면 분렬의 무한 정 지속과 전쟁밖에 없다는것 을 뼈에 사무치게 깨우쳐주고 있다.

올해는 력사적인 7.4공동성 명발표 마흔다섯돛과 10.4선언 발표 열돛이 되기도 하는 뜻깊 은 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뜻과 힘을 합쳐 내외반통일호 전세력의 책동을 물리치고 올 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 어이 열어나가야 한다.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겨레모두가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변함없 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민족 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자주통 일의 리정표이다. 북남공동선 언을 떠난 북남관계개선도, 나 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미국과 침미보 수패당이 마사놓은 북남관계를 되살리고 바른 궤도우에서 전 진시켜나가자고 해도 북남공동 선언들을 고수리행하는 길외에 다른 길은 없다.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이며 이것은 민

족자주와 단합의 소중한 리념 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 족끼리의 리념에 맞게 투철한 자주정신을 가지고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 여야 한다.

《흡수통일》야망에 사로 잡혀 굴욕적인 외세추종정책 과 매국반역적인 외세공조놀 음에 매달리다가 끝끝내 민심 의 징벌을 받고 감옥에 처박 힌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은 사대와 외세의존에 매달려온 민족반역자들은 시대와 력사 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 다는것을 현실로 증명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남조선당국은 이전 대결 《정 권》의 친미굴종과 동족대결 의 범죄적인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외세와 함께 동족을 해 치기 위한 군사적압박수동과 제재놀음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면서 《대화》와 《관 계개선》을 운운하는것은 여 론에 대한 기만이고 우리 겨 레의 북남관계개선열망, 통일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 다.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 지 않고 전쟁불기름만 몰아오 는 외세와의 공조는 대결공조 이고 전쟁공조일 뿐이다. 외 세가 아니라 민족을 중시하여 야 하며 대결이 아니라 화해 와 단합의 바른 궤도에 들어 서야 한다.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 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 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 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키 는 원칙에서 련대연합하고 단 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범위 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 가야 한다. 사상과 제도, 지역 과 리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 를 초월하여 활발히 접촉하고 래왕하며 당면하게는 북남당국 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 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 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기어이 실현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시대착오적 인 《중복》소동을 짓부시고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우 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의 합성 이 다시 거세차게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날로 높아가는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민족 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평화보다 소중한것은 없으 며 현시기 평화를 지키는것은 우리 겨레의 운명과 관련된되는 초미의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

지금 미국은 공화국의 정당 한 자주적권리행사, 자위적조 치들을 걸고들면서 핵전략차 산들을 비롯한 대규모침략무 력을 남조선과 주변 해역에 항 시적으로 전개해놓고 조선반도 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위 기에 몰아가고있다. 지나온 나날들과 오늘의 현실은 미국 이야말로 조선민족이야 죽든 살든 저들의 침략적리해관계를 위해서는 그 어떤짓도 서 습지 않는 제국주의강대국가이 며 흉악무도한 침략자, 평화의 파괴자라는것을 여실히 실증해 주고있다.

조선민족의 생존과 운명을 위협하는 미국의 전쟁책동을 용납치 말아야 하며 조선반도 에서 항시적인 전쟁의 온상인 미군을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내쫓아야 한다.

오늘 조선반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핵은 미국의 침략의 핵이며 그것이 몰아오는 핵전쟁불기름을 억 체적으로 막아주고있는것이 공 화국이 틀어쥔 자위의 핵억제 력이다. 공화국의 핵은 철두 철미 자위의 핵이며 공화국의 자주권과 이 땅의 평화, 겨레 의 운명을 지켜주는 민족공동 의 보검이다. 동방의 핵강국 으로 솟은 공화국의 전략적지 위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으며 정의와 애국의 불줄기들은 제 국주의의 침략과 전횡의 광기 를 짓누르며 보란듯이 만리대 공으로 계속 날아오르게 될것 이다.

선군에 이 땅의 평화도 있고 자주통일도 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 투쟁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선군대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 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력 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의 높은 연단에서 탁월한 조국 통일로선과 방략을 천명하시고 온 겨레를 자주통일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가고계신다. 그이께서 더욱 높이 드신 선 군의 기치는 미국의 침략과 전 횡을 박산내고 그이의 드팀없 는 조국통일의지, 뜨거운 민족 애국의 무한한 신심과 열정을 북돋아주고있다. 천출위인이 계시고 그 정당 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 된 불멸의 통일대강들이 밝은 빛을 뿌려주며 우리 민족끼리 를 진리로 새겨안은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통일애국력량 이 있어 민족의 자주통일위업 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온 겨레는 력사적인 6.15공 동선언의 기치밑에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 감으로써 제2의 6.15통일시대 를 하루빨리 안아오고 삼천리 에 통일만세가 울려 퍼질 환희 의 그날을 앞당겨오야말것 이다.

우리는 이 땅의 평화도 있고 자주통일도 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 투쟁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선군대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 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력 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의 높은 연단에서 탁월한 조국 통일로선과 방략을 천명하시고 온 겨레를 자주통일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가고계신다. 그이께서 더욱 높이 드신 선 군의 기치는 미국의 침략과 전 횡을 박산내고 그이의 드팀없 는 조국통일의지, 뜨거운 민족 애국의 무한한 신심과 열정을 북돋아주고있다.

천출위인이 계시고 그 정당 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 된 불멸의 통일대강들이 밝은 빛을 뿌려주며 우리 민족끼리 를 진리로 새겨안은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통일애국력량 이 있어 민족의 자주통일위업 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는 이 땅의 평화도 있고 자주통일도 있다.

자주 통일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어

이세대를 배경하고 자주적으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고귀한 진리를 겨레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준 것이 6.15공동선언이 밝힌 애국의 대명제 우리 민족끼리이다.

지금으로부터 열일곱해 전 6월 민족분렬 후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우리 민족끼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은 조국통일위업의 새로운 역사적 전환을 가져온 일대 사변이었다.

6.15북남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하기로 약속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나라가 분열되어 55년만에 처음으로 있는 북남수뇌상봉과 북남공동선언 채택은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투철한 민족 자주사상과 대단결로선의 빛나는 승리이며 그이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비범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자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높이 드신 표대이다. 조국통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그이께서는 2000년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의 생명은 자주이고 자주는 곧 통일이다, 통일운동에서 자주적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세기와 세기가 바뀌는 역사의 분기점에 2000년 3월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장군님께서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올 통이 큰 구상과 작전을 하시었다.

그날의 백두산구상이 실천에 옮겨져 2000년 《4.8합의서》가 채택되고 6월에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게 된 것이다. 그 충격과 감동의 55시간 동안에 드높은 자주적 신념과 천리헤안 의 예지, 넓은 포용력과 뜨거운 동포애로 온 겨레를 매혹시키고 행성을 울린 사변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을 안아오신 아버지 장군님이시다.

지금도 몸소 평양비행장에 나가시어 남조선의 김대중대통령을 따듯이 맞이해주시고 함께 차를 타시고 환영도로를 달리시던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이 우렁차어려온다. 2000년의 첫해에 우리가 처음으로 상봉하는만큼 7천만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낙관을 주신 선언적인 문건을 하나 내놓는 것이 좋겠다고,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가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던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고 연회장에서 남측성원들에게 뜻깊은 해학이 담긴 말씀도 하시며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주시던 그이의 따듯한 미소도 어리여온다.



남조선과 세계의 언론들이 들어졌다.》며 대서특필한 력 앞을 다루어 《세기적약수》, 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 《이제 북남관계는 하나의 큰 공동선언의 채택은 정녕 산을 넘었다.》, 《역사가 만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위인적 품모와 자질, 애국애족의 대용단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하기에 평양상봉 후 남조선을 비롯하여 세계도처에서는 《김정일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장군님에 대한 겨레의 매혹과 숭배는 더욱더 깊어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을 위해 열어주신 화해의 길, 통일의 길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대화와 접촉, 래왕과 협력의 물결이 끝없이 흐르고 흘렀다. 그 날 6.15가 놓아준 《통일오작교》를 타고 서울에 내려가 꿈에도 그리던 혈육들과 50년만에 감격적으로 상봉한 공화국의 한 시민이 이렇게 심정을 터치였었다.

... 반세기 맺었던 마음의 웅어리도 한순간의 상봉으로 다 풀리는 그것이 혈육입니다 그것이 민족입니다

아, 7천만바라고바라던 민족의 새 장이 펼쳐졌습니다

위대한 력사가 흐르고있습니다

반복과 대결의 얼음장을 녹

이며 막혔던 분렬의 장벽을 부서지며 화해와 협력, 대단결의 대화가 흐릅니다

통일의 대화가 흐릅니다

... 선군으로 반통일호전세력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온 겨레를 자주통일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오늘 겨레의 통일대행진의 진두에는 위대한 장군님 그 대로이신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해에 있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의 숭고한 뜻과 로선을 받드시어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략들을 밝혀주시고 온 겨레를 자주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이끌어가고계신다. 조선민족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고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고있는 적대세력들을 자위적핵억제력강화로 단호히 제압하시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겨레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자주통일의 찬란한 새 시대를 안아오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서 우리 겨레는 자주통일의 밝은 래일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조국통일의 앞길은 의연 순탄치 않지만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통일 삼천리가 밝은 빛을 뿌리며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민족의 대의를 앞세우고

주체90(2001)년 정초 어느날이었다.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새해의 전망과 관련한 사업을 의논하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지난해의 일들을 더듬으시었다.

지난해에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을 만났을 때에도 이야기하였지만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묻지 말고 다 손을 잡아야 한다고, 과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민족적단합을 이룩할 수 없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나서는 사람들은 다 포섭하여 민족적단합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시었다.

사려깊은 인정미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직후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화국에 체류하고있는 녀류기자 문명자재미동포를 만나주시었다. 그날 내가 다른 외신기자들은 모두 사절해도 문선생만은 부르라고 했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우리 민족으로서 화해와 통일을 위해 정력적인 기자회견을 하고있는데 마땅히 초청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시며 그와 담화를 나누시었다.

오찬시간이 되었을 때였다. 문명자재미동포가 마주한 식탁우에는 감자만두튀기, 김치무우장, 잣죽, 룡두묵 등 여러가지 요리들이 올랐다.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룡두묵을 간장에 찍어 들고 식사하라고, 룡두묵은 몸안의 독성물질을 해독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음식의 약리적 효과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었다. 그리고 그가 물어보는 콩나물김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열화같은 민족애와 바다같이 넓은 도량을 지니신 절세의 애국자, 조국통일의 구성이시었다.

외세에 의하여 둘로 갈라진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려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 재산의 유무 등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이끄시었다.

비록 과거에는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오늘에 와서 진심으로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거를 묻지 않는 원칙에서 관용으로 대하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겠다는 것과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도 민족공동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뜨거운 민족애와 넓은 도량을 지니시고

각계층 동포들이 평양으로 달려왔다.

우리 겨레에게 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대용단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침략세력의 북침전쟁책동을 제압하시고 북남관계개선에 유리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해주시어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성사시키시였으며 새 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6.15시대의 벽찬 그 나날 조국을 방문한 문명자재미동포를 만나시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해외에서 문명 활동가로 적극 활약하고있는데

날 김정일국방위원장은 강하면서도 소탈한분이시였다고 자기의 진정을 토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2009년 8월 평양에 온 남조선 현대그룹 회장일행을 만나주시고 현대그룹의 선인자들을 회고도 하시고 그들이 청하는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 들어주시며 뜨거운 동포애적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6.15 자주통일시대에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단합하고 협력하면 얼마든지 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였으므로 우리민족끼리의 리념으로 전진하는 새 시대를 펼쳐주시어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어머니로 높이 칭송하였다.

오늘도 겨레는 6.15시대의 그 감동깊은 나날들을 되새겨보면서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하루빨리 안아올 애국의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조성철



자주적립장은 통일문제해결의 근본립장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거래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있는 오늘날 민족자주에 충실하고 외세의존을 배격하는것은 더없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외세의존이 치욕과 파멸의 길이기때문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쫓아내고 외세 추종과 동족대결만을 추구하다가 비참한 파멸의 나락에 떨어진 박근혜역도의 말로는 그것을 다시금 똑똑히 새겨주고 있다.

자기 민족보다 외세를 우선시하고 모든 문제를 외세에 의거하여 해결해보려는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면 옳고그른것도 가려보지 못하게 되며 결국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도 서슴없이 팔아먹는 반역의 길을 걷게 된다.

박근혜역도는 집권 4년간 외세의 사타구니에 붙어 동족을 암살하려고 돌아치지만 종당에는 민심의 버림을 받고 역사의 시궁창에 처박히고말았다.

민족반역의 더러운 피를 물려받고 동족대결과 사대매국을 업으로 삼아온 박근혜역도

는 청와대안방에 들어앉은 첫날부터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앞길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으며 천추에 용납 못할 만고 최악을 저질러왔다.

내외정세가 그토록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공화국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진정어린 제안들과 실천적조치들을 거듭 내놓고 선의의 손길도 내밀었지만 그럴수록 박근혜는 대결의 독기를 뿜어대며 《북체제붕괴》와 《흡수통일》을 로골적으로 떠들며 온갖 못된짓을 다 하였다.

6.15시대의 옥동자, 북남화해협력의 마지막상징으로 남아있던 개성공업지구를 끝끝내 폐쇄시키고 동족에 대한 제재와 암살을 떠들며 외세공조, 국제공조에 미쳐들어간 그 모든 최악을 짊어지면 끝이 없다.

더욱 참을수 없는것은 미국의 각본과 조종에 따라 몇푼의 돈을 받고 일본과의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 《합의》라는 것을 조작하였으며 그것도 모

자라 인민들의 존엄과 생명안전,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의 전쟁범죄물 《싸드》까지 남조선에 서슴없이 끌어들이는 것이다.

어느 한 역사학자는 《사대주의는 제 땅과 백성을 외면한 지배층 자기만의 생존전략이며 속성이다.》고 주장한적이 있는데 바로 박근혜역적패당과 같은 친미보수패당에 꼭 어울리는 말이다.

외세가 아니라 동족과 손을 잡고 북남관계개선에 나서는 것만이 살길이라는것은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6.15통일시대는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며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난문제들도 얼마든지 쌍방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현 남조선당국이 주변나라들과 여러 지역들에 특사들을 분주히 파견하며 핵문제, 북남관계문제에서 외세와 적극 공조할 자세를 드러낸것은 결국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북남관계를

해치고 조선반도에 극도의 핵전쟁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끝내는 제 운명까지 망친 박근혜역도의 전철을 밟는 어리석은 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족적인 외세의존정책과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하며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북남관계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거래의 절박한 요구이다. 북남관계문제,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원칙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것은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북과 남이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면서 함께 손잡고 나선다면 외세의 그 어떤 반동일책동도 맥을 칠수 없으며 북남관계에서는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우리 민족끼리의 소중한 뜻을 새겨야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 발표 17돛이 다가오는 지금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간다면 그 격동의 나날들이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그때는 정말 통일이 이렇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환희와 격동으로 누구나 가슴 뚫이던 날이었다.

분렬 55년세월에도 이루지 못했던 일을 북남공동선언체택후 너무도 짧은 기간에 기적적으로 련이어 이룩해내며 모두가 놀라움과 감동을 금치 못했다. 하늘길이 열리고, 땅길이 열리고,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래왕과 협력의 흐름은 삼천리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가 안아온 환희의 새 풍경이었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능히 통일을 안아올수 있다는 신심과 락관을 준 통일6.15시대였다.

남조선에서 대결 《정권》이 초불민심에 의해 거꾸러지고 거래의 북남관계개선열망, 통일열망은 다시 높아가고있지만 침략적인 외세의 반동일전쟁책동은 여전하다. 남조선당

국역시 외세를 증시하고 동족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구걸하면서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의 앞길에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미국으로 말하면 조선민족이 잘되고 통일이 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나라이다. 그 미국에게는 오직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가는 공화국을 암살해버릴 흥심만이 가득차있다. 그런 미국에 끌려다니면서, 동족에 대한 부당한 제재소동에 편승하여 《관계개선》이니, 《대화》니 하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갈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와 외세굴종, 동족에 대한 압박은 전면 배치되는것이다.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자주적립장을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갈때 거래가 바라는 자주통일시대도 오고 통일의 넓은 길이 열린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참사 김유성



백두산의 장쾌한 해돋이를 바라보며 걱정의 환호를 터뜨리는 북과 남의 작가들 (2005. 7.)



백두산과 한나산에서 채화한 성화를 합치는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8.15민족대축전대표들 (2005. 8.)



자주통일의 의지를 가다듬는 북남대표들 (2004. 6.)



부산에서 진행된 국제체육경기에서 이채를 끈 북녘의 응원단 (2002. 9~10.)



6.15공동선언관철에 앞장설 결의를 다지는 북과 남의 로동자들 (2004. 5.)



금강산 삼일포를 찾은 북과 남의 청년학생들 (2006. 5.)



개성공업지구건설작공식 (2003. 6.)



어깨 곁고 달리는 북과 남의 농민들 (2004. 6.)



통일범원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2007. 5.)



북남통일축구경기대회 (2002. 9.)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평양시민들 (2000. 9.)



통일의 꿈을 심고있는 북과 남의 어린이들 (2003. 3.)

아이들의 얼굴에 비낀 민족의 미래

아이들을 사랑하고 훌륭하게 키우는것은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미래와 직결되어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에 당대의 사회상과 미래가 비낀다고 말했다.

며칠전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가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지금도 뜻깊은 대회를 되새겨보는 사람들의 눈앞에 화폭마냥 생생하게 떠오르는것은 감격과 걱정의 눈물을 쏟던 소년단대표들의 얼굴이다.

평양중등학교의 소년단대표가 원아들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제일 큰 가족사진을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정녕 우리의 친아버지이시라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를 때 나 어린 대표들의 불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을 받드시고 세상만복을 다 안겨주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대한 나 어린 소년단원들의 한없는 고마움의 분출이었다.

돌이켜보면 한평생 지나가는 새 세대들속에 계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나라의 미래를 키우는 중요한 사명에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셨다.

항일전과 전화의 나날처럼 언제나 조국땅위에 후대사랑의 전설을 새겨가시던 위대한 주석님이다.

마안산의 험벗은 아동단원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새 조국건설의 나날 북조선립시인민위원회 첫 의정으로 상정되었던 연필문제며 탁아소, 유치원을 내올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와 조선소년단의 창립,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는 친히 최고사령부 집무실에 혈육없는 아이를 데려다 키우시며 전사회적으로 전제교아들을 맡아키우도록 하신 주석님의 뜨거운 사랑과 숭고한 후대관은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 사랑의 손길속에 공화국은 태어나면 얘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과 무료의무교육의

꽃대문이 활짝 열리고 아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는 후대사랑의 대화원으로 되었다.

위대한 주석님의 환하신 영상을 아이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주고 그들의 미래가 밝은 웃음속에 꽃피어나도록 해 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아버지장군님께 있어서 아이들은 웃음이고 꽃이었으며 자랑이고 기쁨이었다. 아이들이 즐겨부르는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의 구절에 있듯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실수 있는 최대의 사랑과 행복이 바로 선군의 길에 있었다.

그이께서 헤치신 선군령도의 길은 말그대로 아이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켜주신 친어머님의 사랑의 행로였다. 바로 그 길이 고난을 돌파하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는 길이기 에 그이께서 타신 야전차는 순간도 멈춤이 없이 달리었다.

위대한 주석님의 그 모습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그 마음으로 후대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끝없는 심혈을 기울이시는 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누구나 말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정말 아이들을 고와하신다고, 어쩌면 아이들과 그렇게도 허물없이 어울리시며 꼬마 《의사》의 《진찰》까지 받으실까, 어쩌면 최전연섬마을의 아기의 첫 돌까지 잊지 않으시고 생일선물을 안고 가실까, 잠자는 아기의 포단을 꿰뚫어 주시며 잘 자거라 하고 그리고 다심하게 속삭이실까, 아이들을 고와하시는것은 우리 원수님의 천품, 어쩔수없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정의 분출이라고.

평양에 육원을 찾으신 그이께서 요구르트를 아이들의 손에 하나하나 들려주시고 빨대까지 손수 입에 물려주신 다심한 보살핌도 바로 몇해전 국제아동절에 있는 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온 나라 아이들모두를 넓고 따사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고 미래의 주인공들로 훌륭히 키우시기 위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는 세상에 없다.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어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는 명절인데 자신께서 원아들의 부모가 되어 명절을 함께 쇠야지 누가 쇠겠는가 하고 신 그이의 다심한 음성, 자애로운 모습을 인민은 잊지 못하고있다.

우리가 혁명을 하는것도 아이들을 위해서이라고,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볼 때마다 혁명을 끝까지 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시며 뜨거운 후대사랑으로 심장을 뚫이시는 그이의 품속에서 공화국의 밝은 미래가 꽃피나고있다.

전국의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원아들의 기쁨, 묘향산의 등산길을 걸으며 야영생활을 하던 학생들이 받아안은 꿈같은 사랑의 이야기이며 학생소년들이 울리는 편지들도 다 보아주시고 보내주신 사랑의 친필들에 깃든 사연, 어린이식

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으로써 우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어떻게 지키는가, 사회주의를 어떻게 고수하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신 원수님의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 대한 현 지지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렇듯 뜨거운 사랑속에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가중되는 것처럼 침예한 환경속에서도 평양가방공장, 민들레학습장 공장, 옥류아동병원 등이 일떠섰고 북부폐지지역 아이들의 즐거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생활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제일 기쁜 순간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놓았을 때이고 그이께서 제일 행복한 순간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져질 때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아이들의 궁전을 마련해주시고도 온 하루 아이들속에 계시면서 축구경기와 축하공연도 함께 보시었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어서는 궁전개건의 원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며 건물위에 《세상에 부럼없어라!》, 《달

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허리를 졸라매고 시련의 천만고비를 결사적으로 이겨내며 국력을 강화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는것은 다름아닌 우리의 후대들이 세계가 우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에서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소년단원들의 앞길에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져질 사회주의강국이 약속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소년단원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을것이며 소년단원들의 행복에 넘친 웃음과 창창한 미래를 끝까지 지켜줄것이라고 언명하시었다.

아이들의 얼굴에 그들이 비끼는 사회제도는 아무리 결보기에 번쩍거리려도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이 활짝 웃는 나라에서는 앞날이 환히 보인다.

공화국에서처럼 령도자가는 나라 아이들의 아버지, 자식부자가 되어 그들모두를 강국건설의 믿음직한 기둥감들 키우는 감동깊은 화폭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진정 위대한 그 사랑이 보살피기에 우리 후대들의 앞날, 공화국의 미래는 그리도 밝고 창창한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평양의 한복판에 황홀경을 펼친 려명거리중공소식이 전해지자 두달이 가까와왔다. 허나 지금도 사람들은 려명거리라는 말을 자주 화제에 올리며 그곳에서 꽃피는 생활에 대해 알고싶어한다. 하여 려명거리에 대한 취재를 이어가던 우리는 이미전에 낫을 익힌 최옥(62살)녀성을 만났다.

그로 말하면 한생을 대성구역상하수도사업소에서 로동자로 일해 온 녀성이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 년로보장을 받고있다는 최옥녀성은 철거세대인 자기 가정도 려명거리 4칸짜리 덩실한 새 집을 받았으면서 우리를 려명동 25인민반 4층 2호의 자기 집으로 이끌었다.

모든 생활조건이 그뿐히 갖추어진 살림방들이며 가정주부들이 리용하는데 편리하게 잘 꾸려진 부엌의 여기저기를 살펴보며 자랑하느라 최옥녀성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날 줄 몰랐다.

최옥녀성은 지열을 리용하여 한겨울에도 방안온도를 20℃이상 보장할수 있게 되어있다고, 매 세대의 먹는 물보장은 저압, 중압, 고압, 초고압 이렇게 계단식양수체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수질이 여간만 좋지 않다고 하였다.

아기자기하게 꾸려진 방에 들어서며 그는 손자애의 방이라고 소개했다. 가슴이 뭉클했

다. 백수십㎡의 큰 집에 겨우 2살밖에 안된 어린이도 당당히 한방을 차지하고있으니.

최옥녀성은 이런 궁궐같은 집에서 평범한 자기가 행복의 보금자리를 펴게 되었다며 국가적배려에 고마움을 금치 못하였다.

《나의 이름이 적힌 살림집

새 거리에 넘치는 인민의 기쁨

리용허가증을 때없이 보고 또 보고 합니다. 그때마다 눈을 뜨고도 꿈을 꾸는것만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별로 한 일이 없는 우리에게 종전에 살던 집과는 대비도 안될 희한한 새 집을 안겨주었으니 이 은혜에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새집들이하는 날에 있는 일을 들려주었다. 새집들이를 하는 날 려명거리를 참관하던 외국인들이 그의 집



에도 들렀다고 한다.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이런 집 한채를 구입하자면 수백만US\$가 있어야 한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집을 가질 엄두도 못낸다, 퇴직할 나이가 다 되어서야 한생 모은 돈으로 집 한채 겨우 장만할수 있는데 그나마 직업이 좋지 못

에 자기 집이 없이 생활하는 세대수가 700여만세대나 되어 생존을 심히 위협당하고있다고 쓴 한 출판물의 글이 떠올랐다. 집을 마련하는것이 오죽이나 힘들면 남조선에서 려에,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로도 모자라 집을 포기하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세대》, 《삶포세대》가 늘어나고있겠는가.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낀다고 했다.

우리는 사회주의선경으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려명거리의 새 집에 보금자리를 편기쁨에 넘쳐있는 최옥녀성의 모습에서 인민을 하는처럼 떠받드시며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아버지로 모시고 부럼없이 사는 복받은 인민의 환희에 찬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리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돌아본 새 거리의 문명, 새 생활의 음향이 왜 그토록 아름답고 세상사람들이 왜 그토록 부러워하는것인지.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새 집을 선참으로 안겨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고 그 품에서 사는 우리 인민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들이라는 생각으로 가슴은 마냥 후더워올랐다.

본사기자 홍범식

에 자기 집이 없이 생활하는 세대수가 700여만세대나 되어 생존을 심히 위협당하고있다고 쓴 한 출판물의 글이 떠올랐다. 집을 마련하는것이 오죽이나 힘들면 남조선에서 려에,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로도 모자라 집을 포기하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세대》, 《삶포세대》가 늘어나고있겠는가.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낀다고 했다.

우리는 사회주의선경으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려명거리의 새 집에 보금자리를 편기쁨에 넘쳐있는 최옥녀성의 모습에서 인민을 하는처럼 떠받드시며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아버지로 모시고 부럼없이 사는 복받은 인민의 환희에 찬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리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돌아본 새 거리의 문명, 새 생활의 음향이 왜 그토록 아름답고 세상사람들이 왜 그토록 부러워하는것인지.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새 집을 선참으로 안겨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고 그 품에서 사는 우리 인민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들이라는 생각으로 가슴은 마냥 후더워올랐다.

본사기자 홍범식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조선의 수력발전분야

북은 얼마전 단천발전소 건설을 착공했다. 지도를 펼쳐놓고보니 방대한 건설공사라는것이 대뜸 알린다.

장진강은 해발고기 1355m인 부전령산줄기에서 시작하여 압록강으로 흘러들고 허천강도 량강도 김형권군에서 시작하여 압록강에 흘러든다.

그 강들을 물몰이하여 물길굴을 통해 동해안의 단천으로 뚝구어 방대한 량의 전기를 생산한다는것이다.

미국이 북이 굴복하게 만들겠다고 단독제제안을 발표하고 유엔안보리사회를 내세워 새 《제재결의안》을 공포하고있는 때에 그 아름찬 대수력발전소건설을 시작했다니 제재에 자기 힘으로 맞서나가 는 그 담대한 기상이 놀라기만 하다.

미국은 북의 기를 꺾고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있지만 보다싶이 북은 배포유하게 더 큰 창조와 건설을 해나가고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현실을 바로 볼줄 아는 사람들은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이 대화에로 지향된다는 것을 내다보고 이 아시아의 밝은 아침의 나라에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돌리고 투자의 향들도 퍼력하

고있다.

《공업의 비타민》이라고 하는 회토류를 비롯하여 막대한 지하자원은 물론 조선의 풍부한 수력자원도 국제적인 투자자들이 육심을 낼만 한 대상이다.

수력발전소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므로 기업가들이 주목하는 투자부문이다. 풍부한 물자원에 의거하여 정상가동되는 조선의 수력발전소들은 투자자들의 구미를 동하게 할수밖에 없고 조선에로의 발걸음을 다그치게 하고있다.

이미 체스꼬와 영국은 조선과 온실가스배출권이 전계약도 맺었다.

또한 함흥청년1호발전소, 금야강청년2호발전소, 백두산선군청년2호발전소, 려성강청년 3호, 4호, 5호발전소들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공식 등록하고 이 사업에 들어갔다.

산업상 용무로 여러번 조선을 다녀온 나에게 조선에 대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묻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한파로 많은 나라가 몸살을 앓고있는 오늘 자위적책은 진 조선은 더욱 매력을 가진 안정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처로 각광을 모으고있다.

재오스트랄리아동포 박경향

창과 방패

지난 5월 30일 미국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미본토를 향해 날아오는것을 가상한 모의요격시범을 진행하였다. 행성에서 노상 힘자랑을 해온 미국이오보편 조선이라는 코지 않은 나라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와들 놀라 전세계가 보는 앞에서 모의요격시범이란것을 벌려놓은자체가 기이하고 놀라운 2017년의 풍경이 아닐수 없다.

창을 휘두르며 상대를 위협해온 미국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미국과 조선과의 관계는 오래동안 창과 방패의 관계였다고 할수 있다. 미국은 창이었고 조선은 방패였다. 창은 공격무기이고 방패는 이름그대로 방어무기이다. 미국은 언제나 창을 비껴들었고 상대를 찌르려 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위협은 미국으로부터 조선으로 전해져왔다. 반면에 조선이 대양 건너 미국에 위협을 가한것은 없다. 조선은 정전협정체결이후에 미국에 대해 시종일관 관계개선과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해왔다. 미국이 조선민족에게 끼친 역사적피악이 헤아릴수 없이 크고 엄중하지만 대결상태를 종식하고 조미관계의 새 출발을 가져올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벌써 수십년전에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비핵화구상을 내놓고 주장한것도 미국의 핵위협을 매일 매 시각 당해온 조선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의 그 모든 선의와 아량과 평화적요구에는 자기의 눈과 귀를 가리워왔다. 조선을 목에 걸린 큰가시처럼 여기면서 해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휴전선이남에 1 000여기에 달하는 핵무기를 전진배치하고 핵위협을 가하는것도 모자라 해마다 대양 건너에서 수많은 함선과 비행기, 병력 등을 끌고와 조선의 코앞에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포성을 울리곤 하였다. 그것은 《방어》로 포장된 위협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이었다. 충격적인 사건들을 일으켜 조선반도에 전쟁발발의 위협을 몰아온것도 미국이다. 남의 령해에 《푸에블로》호무장간첩

요격시범은 오늘날 미국을 위협하는 주되는 적수가 다른 그 누가 아닌 핵을 쥔 동방조선이며 두 나라의 힘과 위상에서 놀라운 변화가 왔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도 할수 있다.

선을 들이밀어 정량행위를 하다가 나포되기도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항공모함전단을 파견하고 《북폭격》설을 내돌리며 전운을 몰아왔으며 그후에는 판문점에서 계획적인 도발사건을 꾸며내어 세인이 조선전쟁이 다시 터지는가 하여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자기한테 돌멩이 하나 던진적이 없는 조선에 대해 미국은 《악의 축》, 《불량배국가》, 《폭정의 전초기지》라며 최대로 중상모독했고 《핵선제타격대상》목록에까지 빠졌이 올려놓았다. 미국이 부정의의 창을 휘두르며 노린것은 조선의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있었다. 그리고 미국식가치관을 전조선반도에 확립하는것이였다. 이에 조선은 국가의 주권과 존엄, 인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군력강화로 맞서왔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어려운 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킨다는 특이한 로선을 천명했고 미국의 침략을 막

아낼수 있게 전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는 사업도 다그쳤다. 조선이 궁극적으로 핵을 가지게 된것도 핵을 쥔 미국의 위협과 압살에 맞선 너무도 당연한 자위적조치였다. 상대가 수천수만개의 핵을 쥐고 계속 자기를 해치려고 달려드는데 재래식무기로만 방어하는것은 한계가 있는것이다. 핵위협은 핵으로만 막을수 있는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인정하고있다. 지난 6월초 어느 한 대국의 대통령도 어느 한 국제경제포럼에서 한 토론에서 《작은나라는 자신들의 독립과 안전,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갖는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있다.》고 조선의 핵보유를 리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는 미국의 대조선제재를 겨냥해 《힘의 논리, 폭력의 논리가 폭을 넓히는 동안에는 지금 조선에서 일어나고있는것과 같은 문제(탄도미사일시험발사)가 일어날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선의 핵은 이처럼 미국의 핵공격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패로 출현하였다.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정치경제적압박과 핵위협을 도수를 높여갈수록 조선이 쥔 전쟁억제력으로서의 핵무기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되기마련이다.

뒤바뀌여지는 창과 방패

세기가 바뀌고 지금은 2017년이다. 오늘날 조미사이의 대결풍경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다. 세인의 눈에 비껴오는것은 조선은 창 의 모습이고 미국은 방패의 모습이다. 물론 미국은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3대전력 자산》을 총투입하여 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더욱 강화하고 조선을 어떻게 하나 무릎꿇게 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이제 힘은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었고 조선의 강한 대응에

감히 군사적인 모험도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있다. 미국이 조선의 핵능력고도화를 저지시키려고 추종국가들까지 발동하여 부산을 피우고있는것은 그만큼 조선의 힘에 다급해난 미국의 불안한 심리를 잘 말해주는것이다. 조선의 정의의 핵무기는 오늘에 와서 미국본토도 위협할정도가 되었다. 이남에 있는 미군기지들은 물론이고 유사시 미국의 핵전략폭격기들이 조선을 향해 리륙하게 되는 판도도 북의 핵미사일들의 사정권내에 있다. 최근 하와이와 알

라스카까지 날아갈수 있는 조선의 《화성-12》형 중장거리미사일의 놀랄만 한 능력도 과시되었다. 해마다 조선반도해역에 몰려들군 하는 미국의 《칼빈슨》호를 비롯한 핵동력항공모함들도 언제 불벼락이 되어 들쭉날쭉질지 모를 조선 핵미사일의 사거리안에 들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련일 아우성이다. 2월 1일 미국회에는 조선을 《미국의 (악몽목록) 가운데서 가장 폭대기에 근접한 나라》로 규정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뉴욕 타임스》는 급속도로 강화되는 조선의 핵미사일들은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있다고 하면서 《이제 미국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평하였다. 제임스 매리스 미국 국방장관은 얼마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말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시급한 위협은 조선으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로 그림은 (미국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문제는 조선의 핵과 그 운반능력은 하루가 다르게 최고도로 치달아오르는데 미국은 그 창을 도저히 제거할수도, 막아낼수도 없게 되었다는데 있다. 입이 닳도록 《핵포기》를 떠들고 《조선은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언도 했지만 그것은 맥빠진 꾸밈일뿐이다. 정치외교적압력도, 제재몽둥이도, 군사적위협도 조선에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것은 이미 립증되고도 남음이 있다. 미군부내에서는 《조선과의 전쟁은 재앙이 될것》이라며 대북군사조치에 부정적인 립장을 밝히는 목소리들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트럼프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 그것을 구체화한 대조선정책 《4대기조》는 나오자마자 서리맛은 호박익신세가 되었다. 요즘 트럼프가 조선핵문제 너무 꼴을 썩이다보니 《정신

적으로 이상해졌다.》는 소리들이 미국에서 들려오는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이것이 오늘날 달라진 조선과 미국사이의 대결무대이다. 조선의 방패가 미국을 겨는 정의의 창으로 되고 조선을 찌르려던 악의 제국 미국은 언제 조선의 핵탄이 날아올지 몰라 공포에 떨고 허겁지겁하는 모양새이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이것을 누가 과연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도저히 믿기 어렵지만 그것은 눈앞의 엄연한 현실로 되고있다. 그것은 초고속으로 이루어져온 조선의 핵능력고도화, 미사일능력고도화에 의해 가능해진것이다. 조선은 자기의 단호하고도 용감한 행동과 실천으로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상대가 위협으로 느낄수 있게 자기 힘을 최대로 강화하는것이라는것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미국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렸지만 남을 닦할수도 없게 되어있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주권국가를 마구 통락하고 해치려는 자기의 범죄적행동이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를 조선의 핵미사일의 괴력에 놓이게 한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한것이다. 지금 조선에는 창과 방패가 다 갖추어져있다. 조선의 핵은 위력한 방패이자 무서운 창이기도 하다. 일단 자기를 건드리려는 상대가 있으면 그 방패는 창으로 된다. 그렇다고 아무나 다 찌르는 창이 아니다. 조선의 창은 자기를 위협하고있는 주되는 적수인 미국을 겨눈것이다. 미국과 같이 춤을 추면서 부당한 대조선적대시압살일변도정책에 매달리고있는 일본에게도 조선의 핵은 결코 안심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조선의 창에는 정의가 비껴있다. 그리고 가장 위력한 핵이 장약되어있다. 정의가 들어친 가장 무서운 창이다. 그 창을 미국은 막아낼수 없다. 《페트리오트》로도, 이남에 전개한 《싸드》로도, 최근 시험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요

격미사일로도 번개같이 날아들 그 무수한 창을 도저히 막아낼수 없다.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조선은 동방의 해돋는 나라이다. 지구상에서 뜨는 해를 제일먼저 맞는 조선은 지금 동방의 찬란한 핵강국, 로케트맹주국으로 부상했다. 반면에 미국은 해가 지는 나라이다. 미국은 신흥핵강국, 정의의 조선에 의해 력사상 가장 비참한 내리막길로 질주하고있다. 조선은 속고 미국은 내리막길을 걷는것은 일찌기 조선전쟁으로부터 시작되여온 두 나라사이의 전통이고 운명적인 법칙이며 오늘에 와서 그 끝은 마지막단계에 이르러있다. 누가 보아도 시간이 갈수록 더 불리해질것은 미국이다. 그렇다고 시간을 미국이 불들어둘수도 없는 노릇이다. 시간은 조선의 편에서 한초 또 한초 흐르고있다. 조선의 정의의 핵방패가 창으로 되어 실지 미국을 찌르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는 얼마전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시험발사성공을 보아주시는 자리에서 미국이 부질없는 경계망동으로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를 조선의 핵미사일의 괴력에 놓이게 한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한것이다. 지금 조선에는 창과 방패가 다 갖추어져있다. 조선의 핵은 위력한 방패이자 무서운 창이기도 하다. 일단 자기를 건드리려는 상대가 있으면 그 방패는 창으로 된다. 그렇다고 아무나 다 찌르는 창이 아니다. 조선의 창은 자기를 위협하고있는 주되는 적수인 미국을 겨눈것이다. 미국과 같이 춤을 추면서 부당한 대조선적대시압살일변도정책에 매달리고있는 일본에게도 조선의 핵은 결코 안심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조선의 창에는 정의가 비껴있다. 그리고 가장 위력한 핵이 장약되어있다. 정의가 들어친 가장 무서운 창이다. 그 창을 미국은 막아낼수 없다. 《페트리오트》로도, 이남에 전개한 《싸드》로도, 최근 시험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요

달라질수 없는 핵강국의 지위

《그래도 지구는 돈다.》 유럽에서 1633년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이며 천문학자인 갈릴레이가 쾰베르니끄의 지동설을 지지하였다고 하여 종교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한 유명한 말이다. 그때로부터 수백년이 흐른 오늘 이 말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것은 그 누가 부정하고 거부한다고 하여 진리는 결코 가리울수 없으며 객관적인 사물현상은 있는 그대로 보고 느껴야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최근 미국은 《북핵해결》을 위해 그 무슨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정책을 내놓고 그에 기초하여 공화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니 뭐니 하며 억지를 부리고 그에 따른 군사적압박소동을 대대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중세기 객관적현실과 진리를 부정하며 마녀재판을 일삼던 종교재판관들의 무지와 몽매가 인류문명이 흐르는 21세기의 오늘 미국에 의해 재현되고있으니 실로 어처구니없는 노릇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인류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처음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한 이래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핵을 보유하였지만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의 승인이나 인정을 받고 마련한것이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핵을 보유할것은 철두철미 자기 나라의 리익을 위한것이다. 자기의 존엄과 리익을 위한 자주적선택을 하면서 미국의 눈치나 보고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공화국이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미국의 핵위협을 받아왔다는것은 자라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또 조선반도를 둘러싼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있거나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있는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오직 공화국만이 비핵국가였다.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핵위협은 공화국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을 요구하였다.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자고 핵을 틀어쥔 공화국이 아니다. 세기와 년대를 이어 감행되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공화국은 정의의 핵보급을 틀어쥐었고 오늘은 미태평양군사령부가 동지를 들고 있는 하와이와 알라스카를 비

롯한 침략기지들을 사정권안에 두고있는 무시 못할 동방의 핵강국으로 우뚝 솟았다. 공화국이 지금 속도로 나가면 2020년까지 미국본토를 타격할 100개가 넘는 핵을 가지게 된다고 저들입으로 떠들며 아우성치면서도 핵보유국으로 인정 못하겠다는것은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우고 해를 못 본다고 하는것과 같은 유치한 노릇이다. 미국이 조선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하는 말자체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소리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미국이 인정하든 말든 공화국은 그에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최대의 적대국가이며 교전국가인 미국을 핵공포에 전몰하게 하는 능력을 련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이 공화국의 확고한 립장이다. 그 능력은 이미 충분히 립증되었고 동방의 핵강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추호도 달라질수 없다. 공화국은 불의의 횡포에 정의의 핵보급으로 맞서 앞으로 자위의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얼마전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사이엔》호가 남조선의 부산항에 기여들었다. 하와이의 진주만을 모항으로 하고있는 핵추진잠수함 《사이엔》호는 미태평양함대소속의 6 900급 함선으로서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핵공격장비들을 적재하고있다고 한다. 호전광들은 핵추진잠수함 《사이엔》호가 《북의 핵심전략시설을 타격》할수 있다고 내놓고 떠들고있다. 수많은 어뢰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수 있는 미핵잠수함의 부산항입항은 공화국에 대한 로폭적인 군사적위협이며 북침전쟁도발을 노린 위협천만한 군사적망동이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각종 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밀고 공화국을 겨냥한 북침핵전쟁연습을 련이어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뜩이나 불안정한 조선반도정세는 더욱 통제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들고있다. 지금 미국은 공화국을 한사코 고립압살할 흥심밀에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대북압박》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다. 미국의 《대북압박》소동에서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은 기본고리로 되고있다. 핵잠수함 《사이엔》호는 미국의 이러한 도발적인 군사적압박과 무력증강소동의 연장으로 부산항에 들어왔다.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국은 지난 세기 조선전쟁도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도발하였으며 새 세기에 들어와 이라크전쟁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력침공도 그렇게 시작되었다. 미국의 핵잠수함 《사이엔》호가 부산항에 기여들기 하루전에 미국이 남조선에 거주하고있는 미군가족들을 포함한 자국의 민간인들을 해외로 소개시키는 훈련을 벌려놓은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간인소개는 전쟁전야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지난 조선전쟁도발당시에도 미국은 사전에 남조선에 거주하고있는 미군가족들을 비롯한 자국의 민간인들을 비행기와 선박을 리

용하여 조선반도경외로 빼돌렸었다. 미국이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압력을 강화하면서 민간인소개훈련까지 벌려놓은것은 저들이 임의의 시각에 북침전쟁도발에 나서려 한다는것을 로폭적으로 시사한것이다. 미국은 걸으로는 공화국의 체제를 보장할것이라느니, 적대시할 의사가 없느니 뭐니 하지만 실지로는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압박과 전쟁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히 위협받고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미국이 군사적압박과 북침전쟁연습으로 공화국의 초강경의지를 시험해보려 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인 공화국은 바다속으로 기여들든 바퀴세끼들처럼 달아나든 침략자들의 일거일동을 놓치지 않고있다가 때가 되면 섬멸의 불벼락을 들썩우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서 희

만일 무덤에 누워있었다면 북침핵전쟁연습을 련이어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뜩이나 불안정한 조선반도정세는 더욱 통제불가능한 상태에

치떨리는 특대형테로범죄의 진상 (1)

지난 5월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미국과 남조선정보기관의 특대형국가테로범죄가 적발된 사실앞에 세계가 경악하고있다.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이번 사건은 국제법을 란쪽하게 유린한 가장 극악무도한 특대형테로범죄이다.

이번에 적발체포된 테로행위가담자의 증언과 제시된 모든 물적증거들은 미국과 남조선정보기관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미중앙정보국과 공모결탁한 남조선 《국정원》의 살인악마들은 2014년 6월 당시 로런주제 하바롭스 크변강 립업지부 노동자였던 공화국공민 김성일에게 《피랍탈북인권련대》 대표 도희운을 접근시켜 돈과 물질을 대수습한 다음 교묘하고도 끈질긴 수단과 방법으로 공화국의 최고수뇌부와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적대의식을 불어넣었다.

《피랍탈북인권련대》 대표 도희운은 남조선 《국정원》의 끄나몰로서 공화국공민들에 대한 유인람책을 전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범죄자이며 수전노이다.

이에 대해 김성일은 다음과 같이 자백하였다.

《도희운은 전화로 나에게 자기는 〈인권〉을 위해 노력하며 자기가 하는 일중에는 공화국공민들을 남조선으로 데려가는 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날조된 자료들을 그럴

듯하게 엮어왔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잘 믿으려하지 않자 도희운은 판형컴퓨터로 남조선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준 다음 인편을 통해 남조선산 판형컴퓨터를 나에게 보내왔습니다. 도희운이 알려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모든 내용이 다 우리 수뇌부와 공화국에 대한 악선전과 모략자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략자료들을 보는 과정에 자기도 모르게 공화국제도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희운과 《국정원》 패거리들은 김성일을 테로범으로 전락시키기 위해 심리전을 끈질기게 벌였으며 2만US\$의 자금과 위성송신기재를 넘겨주어 그에 부단히 숙달시켰다.

도희운으로부터 김성일에 대한 보고를 받은 《국정원》요원 한모는 2015년 1월 하바롭스크에 날아들었으며 김성일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행사나 열병식 및 군중시위때 10~15km정도 비행할수 있는 유도비행체를 리용한 테로 및 암살방법에 대하여 모의하였으나 차후 《그 방법은 대낮에 주권국가의 최고수뇌부를 테로하는 것으로서 아무리 은밀하게 한다고 해도 그 혐의는 〈한국〉에 쏠리게 되어있다.》고 하면서 다른 방도를 모색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2015년 2월 《국정원》요원 한모는 김성일이 귀국후 비밀조직을 꾸리고 《수뇌부제거》방도를 전 문적으로 연구하여 《국

정원》에 보고하면 《국정원》은 그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 자금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모의한 다음 3월초에 김성일이 로씨야 남하바롭스크지역에 있는 《유즈노이 빠르크》백화점에서 《국정원》요원으로부터 통신에 필요한 위성봉사기와 손전화기, 휴대용컴퓨터와 함께 1만US\$를 넘겨받도록 하였다.

2015년 4월에 《국정원》요원 한 모는 위성통신기재를 리용하여 김성일에게 《북의 최고수뇌부를 제거하자면 폭탄공격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은밀한 방법을 생각해 보라. 첫째로 방사성물질을 리용한 방법이 있는데 사람의 인체와 어느 정도 떨어져있는 지점에 놓아도 일정한 시간 방사선을 받으면 몇달 지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내이든 야외이든 최고수뇌부가 앉거나 지나갈수 있는 위치에 방사성물질을 놓아두기만 하면 된다. 둘째로 나노형태의 독성물질을 리용한 방법인데 독성물질이 사람의 인체에 들어가면 일반독성물질처럼 반응하는것이 아니라 인체의 세포를 파괴한다. 결국 사람의 로화가 급속으로 촉진되어 결국 사망하게 된다. 두가지 물질이 모두 그 후과가 즉시 나타나지는것이 아니라 6개월 혹은 1년후에 서서히 나타나는데 그 치료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런 방향에서 방도를 찾아보라.》는 지령을

주었다.

그후 《국정원》요원 한모는 인터넷을 리용하여 김성일과 공화국의 최고수뇌부에 대한 테로 및 암살모의를 계속 해오다가 2015년 8월 로씨야 하바롭스크시 아무르강변 유보도에서 직접 접선한후 《방사성물질과 나노형태의 독성물질은 모두 미국인이 개발할수 있는 물질인데 그 조성성분에 대해서는 미중앙정보국만이 알고있다. 북의 최고수뇌부를 암살할수 있는... 단 한건의 명확한 정보만 쥐어도 미중앙정보국이나 해당 나라의 정보기관과 협력하여 그 물질들을 넣어 들여보낼수 있다. 평양에 들어가면 그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령을 준 다음 새로운 위성봉사기와 손전화기와 함께 1만US\$를 넘겨주었다.

나중에는 수뇌부테로와 관련한 비밀을 절대적으로 지켜주겠다는 《국정원》의 담보를 주는것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들도 무사치 못할것이라는 회유와 협박까지 가하고 공화국에 침투시켰다.

본사기자 주광일

선임자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최근 유엔안보리사회는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군사력강화조치를 결코들면서 부당한 대조선 《제재결의》 2356호라는것을 조작해내었다. 이것이 미국과 북의 꼭두각시로 전략한 유엔안보리사회는 또 하나의 추태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하면서도 남조선당국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합세해나서고있는것이다. 현 남조선당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내세워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것으로 평가한다.》느니,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결의〉를 충실히 리행하면서 제재와 압박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느니 하고 떠들어댔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에 적극 가담해나서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지금 내외여론은 남조선당국이 민간단체의

《접촉승인》이요 뒤로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보수패당의 대결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좋은 평가이다. 공화국의 인민들도 집권하자마자 미국의 핵항공모함라자단들을 련속 끌어들이 북침전쟁연습을 벌여놓고 유엔 《제재결의》를 지지하는 현 남조선당국에 대해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미국이 공화국의 핵포기를 통해 노리는것은 사실상 공화국의 무장해제이고 종국적으로는 체제를 암살이다.

미국이 핵포기를 요구하는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의 대조선핵위협은 없어지거나 줄어든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증대되고있다. 미국은 지금 대륙간탄도미사일, 핵항공모함, 핵전략 폭격기, 핵잠수함 등 가지고있는 전략자산들을 총동원하여 공화국을 포위하고 갖은 핵위협을 다

가하고있다. 그러면서도 공화국에 핵을 내려놓으라고 강박하고있다. 이런것을 보고 날강도라고 한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위험천만한 핵에 대해서는 입 한번 벌구 못하고 동족의 자위의 핵에 대해 이전 박근혜 《정권》처럼 덮어놓고 내려놓으라고 떠들어대고있다. 친미굴종과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갖은 못된것을 다하다가 초불민심의 탄핵을 당한 이전 대결 《정권》의 망동과 무엇이 다른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패당의 대결정책과 결별하지 못한다면 그가 누구이든 민심의 준엄한 심판속에 파멸당한 선임자들의 비참한 전철을 밟게 될것은 명백하다.

현 남조선당국이 진정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외세와 제재합창을 하며 동족압박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견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김영진

천하검쟁이의 비굴한 버력질

날로 장성강화되는 공화국의 핵, 로켓위력에 대비백산한 남조선의 군부보수패당이 최근 틈만 생기면 해외를 싸다니며 동족압살을 구걸하는 추태를 부리고있다.

얼마전 남조선 《국방부》장관 한민구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놀아댄 꼴이 바로 그러하다.

이번에 한민구는 회의전 기간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 국방장관들과 량자 및 3자회담을 벌여놓고 《북의 핵실험 및 미 싸일시험발사는 전세계에 대한 직접적위협》이라고 떠들며서 《대북공조》를 구걸하며 돌아왔다.

세계를 놀래우는 공화국의 핵역제력강화조치에 화들짝 놀라 해외에 나가 외세에게 《대북제재압박공조》와 동족압살을 구걸해나서는 이자의 처사분간 못하고 추태를 부리는 대결범자의 꼴풀이 아

닐수 없다.

한민구로 말하면 이미 연평도사건당시 공화국의 무자비한 불소나기맛을 톡톡히 보고 혼이 빠져 입 한번 못 벌린탓에 합동참모본부 의장자리에서 나뉘어졌던 천하의 비검쟁이이다.

이런 얼간이들이 박근혜의 간에 들어 《국방부》장관후보로 지명되자 민중이 쑥대우에 올라간것처럼 《국회》인사청문회장에서 그 누구의 《도발》시 《도발원》과 지원, 지휘세력까지 응징》할것이라고 허세를 부렸다.

《국방부》장관버거지를 쓴 다음에는 최대열접수역인 연평도에 나타나 같은 나발을 불어대며 줄개들을 군사적도발에로 마구 내몰았다.

미본토의 핵무력까지 동원하여 공화국을 선제타격한다는 《맞춤형역제전략》, 북남무력충돌을 일으키고 그것을 전면전쟁으

로 확대하기 위한 《국지도발공동대비계획》, 공화국의 핵 및 로켓기지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4D작전계획》 등 미국 상전의 각종 전쟁각본들을 통채로 받아물고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합동군사연습을 지속적으로 벌려놓다 못해 악명높은 미군의 특수부대들과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 《북지도부제거》니, 《평양점령》이니 하는 무엄한 흥계를 로폭적으로 드러내는 등 박근혜의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의 돌격대가 되어 미쳐날뎠자가 바로 한민구이다.

천하의 악질본자, 동족대결분자인 이자는 민심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위험천만한 《싸드》까지 도적고양이처럼 몰래 끌어들여 남조선을 통채로 외세의 핵전쟁도박판으로 만들었다.

박근혜역도의 특등노복으로서 이미 민심의 준엄

한 심판을 받았어야 할 범죄자가 제 풍수도 모르고 동족대결에 미쳐날뎠것이야말로 용납할수 없는 반민족적망동이다.

문제는 이런 역적배를 국제무대에 내보내어 동족압살을 구걸케 한 남조선당국이다.

동족대결과 외세의존은 박근혜패당이 집권전 기간 추구한 반민족적망동이다.

남조선의 박근혜 친미보수패당이 외세의 옷자락에 매달려 동족대결에 악을 써했지만 차례진것은 국제적인 저주와 맹대이고 그 누구의 《제도붕괴》와 《체제변화》가 아닌 저들자신의 비참한 파멸이었다.

남조선당국은 지금까지 박근혜패당이 집요하게 추구하여온 동족대결정책과 《북핵공조》놀음의 결과가 과연 어떤것이였는가를 심중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정종문

친미굴종의 역스러운 《자문》 놀음

얼마전 남조선당국자가 앞으로 예정되어있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남조선당국자는 남조선미국 《정상회담》과 《대북정책》, 《싸드》배치문제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였다. 이에 반기문은 제법 혼시조로 《대북정책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북에 원칙적자세를 보여주는게 중요하다.》, 《〈한〉 미동맹이 초석이 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트럼프행정부(싸드)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있다.》, 《북핵에 대한 〈한〉 미간의 공동분보를 잘 활용하는것이 좋겠다.》고 하는 등 미

국의 립장을 대변한 소리만 잔뜩 늘어놓았다.

반기문이 어떤 인물인가는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있다. 민족적자존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고 미국에 대한 아부굴종밖에 모르는 전형적인 친미굴종분자이다. 그가 유엔사무총장자리에 앉자 한 일이란 국제무대에서 미국에 추종하여 반공화국대결나발만 불어댄것밖에 없다. 이런 자기에 그는 박근혜가 탄핵당하자 다음번 권력을 노리고 선거판에 끼여들었다가 주대도 없고 굴종밖에 모르는 정치감상배라는 세간의 비난만 받고 황급히 미국으로 다시 쫓겨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미국과의 관계문제에서 조언을 받을 사람이 없어

하필이면 그런자의 입을 귀를 갖다대었으니 얼마나 꼴불견인가.

남조선당국자에게 반기문은 자기의 굴종경륜을 다 짜내 미국어른들에게 굴종하라고 훈시해준것이다. 그에 머리를 끄덕이면서 친미굴종의 길로 계속 나아가간다면 그것은 박근혜역 《정권》의 전철을 되밟는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남조선에서 《적폐청산》 대상에 속하는 반기문의 주문은 그대로 박근혜역도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라는 소리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든 초불민심의 기대에 먹칠을 하는 얼빠진 놀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제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격으로만 될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비정규직완전철폐를 위한 총파업 선포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총파업을 벌릴것을 선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비정규직완전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해 6월 말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는 부산시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비정규직의 완전정규직화 등을 위해 6월말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포하였다.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임금은 정규직의 60%에 불과하다고 까밝히고 비정규직차별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교육청과 《정부》가 비정규직차별에 시달리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6월말 총파업을 통해 임금인상과 완전한 정규직쟁취를 위한 행동을 시작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사기자

장하였다.

시교육청과 《정부》가 비정규직차별에 시달리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6월말 총파업을 통해 임금인상과 완전한 정규직쟁취를 위한 행동을 시작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사기자



굴종은 더 큰 굴종으로 이어진다

남조선에서 군부가 미국의 《싸드》발사대를 추가반입하고도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숨겨온 사실이 드러나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전 《국가안보실》실장,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부패거리들은 이미 공개된 《싸드》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를 몰래 추가반입해 놓고서도 새 《정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남조선인민들을 핵전쟁재물로 섬겨버쳐서라도 미국상선의 환심을 얻어 더러운 잔명만 부지하면 된다는 박

근해군부잔당들의 흥심이 더욱 날날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잔당들이 도적이고 양이처럼 벌려놓은 《싸드》발사대 추가반입놀음은 남조선인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또 하나의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친미사대굴종의 극치이다. 《싸드》가 얼마나 민심의 반대배격을 받고 그것이 오죽 두려웠으면 이렇게 숨기면서까지 배치하려고 하겠는가.

지금 남조선의 진보개혁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싸드)를 들어 온자들은 아직도 박근혜(정부) 인줄 아는 모양

이다.》, 《김관진, 한민구를 비롯한 (싸드)발사대를 추가반입자들은 국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면서 련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조선 각계가 《을사오적》으로 규탄하고 있는 것처럼 김관진, 한민구 등 《싸드》발사대를 추가반입한자들은 국형에 처해야 할 역적들이 분명하다.

외세에 명줄을 걸고 동족대결에 광분하는 특등범죄무리, 박근혜잔당들을 청산하고 이자들이 끼친 해악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싸드》배치로 인한 재앙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오히려 저들의 불법, 비법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싸드》를 당장 제방으로 끌어내갈 대신 더욱 기고만장하여 《싸드》배치를 강박하며 오만불손하게 놀아대고 있다.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조사는 기존결정을 바꾸거나 미국에 다른 메세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리해해달라.》느니 뭐니 하면서 상전에게 구차스럽게 빌붙는 놀음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게 빼앗긴 존엄과 주권을 되찾으려는 남조선의 초불민심에 역행하는 비굴한 짓이 아닐 수 없다. 굴종은 더 큰 굴종으로 이어지 기 마련이다.

미국의 날강도적인 《싸드》배치압박에 계속 추종하다가 가는 민족의 근본이익과 자신들의 운명을 해치는 비극적인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본사기자 류현철

9월이 돼야 살았겠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사에 6월인민항쟁은 뚜렷한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다. 벌써 30년 세월이 흘렀다.

1987년 6월 남조선의 수백만명의 각계층 인민들은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선거로 군사독재 《정권》을 연장해 보려는 전두환 군사파쇼도당을 반대하여 항쟁에 참가하였다. 20일 동안이나 진행된 격렬한 투쟁을 통해 남조선인민들은 군부파쇼세력으로부터 《직선제개헌》 등이 포함된 《6.29선언》을 받았다.

6월인민항쟁은 외세와 그 주구들의 파쇼독재통치를 청산하고 자주적이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안아오기 위한

의로운 전민항쟁으로서 각계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의 단합된 힘은 그 어떤 독재의 아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다스려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다.

세월이 흐르고 세기도 바뀌었지만 항쟁용사들의 고귀한 낮은 남조선인민운동사와 더불어 오늘도 살아 빛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초불항쟁으로 파쇼독재권력을 겨꾸러드리고 박근혜역적패당에게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30년전 그날처럼 정의의 위해 일떠선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력사에 뚜렷이 실증해준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민주화를 철저히 실현할 때까지 반미반파쇼투쟁을 계속 즐기차게 벌려나아가야 한다.

바로 30년전 피로써 쟁취한 6월인민항쟁의 열매도 그 후 움모적방법으로 로태우군사파쇼 《정권》을 조작한 미국과 남조선

군부독재자들에 의해 무참히 찬탈당했다. 갖은 기만술책으로 《정권》의 자리에 기여들어 《유신》독재를 부활시킨 박근혜의 범죄행적도 심각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외세의 지배와 군사적 강점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남조선에서 6월인민항쟁용사들의 넋원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나 가야 한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올해는 6월항쟁 30년이 되는 동시에 박근혜 《정권》을 몰아낸 뜻깊은 해라고 하면서 《6월항쟁렬사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량심수를 석방하라!》, 《남북선언리행, (싸드) 배치반대, 평화협정체결로 (한) 반도평화 실현하자!》 등의 구호를 웨치며 정의의 초불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본사기자 김련옥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은 폐 규탄 및 철저한 진상조사 불법과 전횡 일삼으며 사드 배치 강행한 국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전면 철폐 조사하라

발사: 2017. 5. 31(수) 오후 2시 장소: 국방부 정문앞 주최: 사드한국배치철폐

남조선에서 신 효순, 심미선 두 녀중학생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로부터 15년이 된다. 지난 2002년 6월 13일 칩락전쟁연습에 미쳐날뛰던 남조선강점미군의 장갑차가 경기도 양주에서 동무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길을 걸어가던 두 녀학생을 무참히 짓겨버렸다. 이 고의적인 살인만행은 미국의 남조선강점이 빚어낸 비극적참상으로서 괴를 줄기는 양키식인종들만이 저지할 수 있는 극악무도한 인간도살행위였다. 돌이켜보면 미국이 칩락의 더러운 군화발을 들어 놓은 때로부터 장장 70여년 세월 남조선인민들이 당한 불행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산나물캐는 소녀를

《쟁》이라고 하며 쓰아 죽이고 송유판결에서 늘고 있던 3살 난 어린아이를 《도적》이라고 쓰아 죽이면서 너털웃음을 친 회색의 살인악마들에 의해 남조선의 곳곳에서 원한의 피가 흘렀고 울분과 분노의 웨침소리가 그칠새 없었다. 그런데도 미국은 아직까지도 저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죄 한마디 한 적이 없으며 오늘도 남조선도처에서 치명리는 범죄를 계속 일삼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오늘 남조선에서 미군의 강간, 살인, 도적질과 같은 범죄행위는 도적질과 같은 범죄행위로 도적고양이마냥 끊어들이고 더우기는 위험천만한 핵전력자산들을 남조선과 주변해역에 계속 전개하면서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고 발광하고 있다. 그 누가 청하지도 않은 땅에 기여들어와 온갖 못된 짓만 다 골라하는 남조

선강점 미군, 남조선인민들을 한갓 노예로, 살인오락의 과녀노박에 여기지 않는 미군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과 우리 겨레에게 있어 불행과 재난의 화근이 아닐 수 없다. 남조선에서 미제칩락군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신 효순, 심미선학생들이 당한 비극적참상이 또다시 되풀이되게 될 것이다. 15년전 남조선인민들은 두 녀중학생 살인사건의 진상규명과 범죄자처벌을 요구하는 100만초불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밀뿌리쳐 뒤흔들었다. 오늘도 구원을 떠도는 두 녀학생의 원혼은 웨치고 있다. 살인자들을 처벌하라, 미군은 제 집으로 돌아가라.

본사기자 김영춘

초불민심을 짓밟는 미국의 압박소동

남조선에서 초불투쟁에 의해 박근혜 《정권》이 파멸되고 새 《정권》이 발족한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미국이 《대북정책》, 《싸드》문제 등으로 남조선당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대표단과 의회대표단, 개별적인 정치인들과 대조선전문가들을 남조선에 련이어 파견하여 《대북 및 외교정책》, 《싸드》배치문제 등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립장을 따지고들면서 《올바른 의견하에서만 북과의 대화 가능하다.》, 《(해별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답습해서는 안된다.》 《(한) 미가 긴밀히 공조해나가야 한다.》, 《(싸드)는 (한국)에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고 남조선당국을 마구 달구어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실장과 외교부 1차관을 미국에 불

러들여 6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남조선당국자가 트럼프와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게 사전에 침을 놓기도 하고 있다.

미의회조사국과 헤리티지재단, 《월 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정책연구기관들과 언론들도 현 남조선당국이 《미국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행정부가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 《앞으로 (한) 미가 심각한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떠들며 남조선당국에 대한 거부감과 불신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 시기에 미국이 남조선에 《정권》이 바뀔 때면 의례히 저들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였지만 지금처럼 행정부와 정계, 학계, 언론계가 총동원되어 남조선당국을 압박하고 회유하며

부산스럽게 놀아댄적은 없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전례없는 강박소동에는 현 남조선 《정권》의 출현으로 저들의 대조선정책과 아시아태평양양자배전략실현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감과 함께 남조선의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미국의 체질적인 거부감이 그대로 깔려있다. 따지고보면 미국은 력대적으로 남조선에 민주세력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저들과 보조를 맞추도록 길들이기 하여왔다.

이것은 《한미동맹》이 사실상 철저한 《예속동맹》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6월말에 있게 될 《한미정상회담》 역시 남조선집권자에 대한 한차례의 세뇌공정으로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문제는 이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태도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오만과 강박에 겁을 먹고 《한미공조강화》를 떠들고 이미 남조선에 배비된 《싸드》는 철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전의 비위를 맞추느라 급급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 집권당국에게서 남조선인민들이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역도와 그 수하졸개들이 국제무대를 돌아치며 벌린 굴욕적인 추태를 너무도 많이 목격하며 민족적 수치감만을 느껴온 남조선인민들이다. 자주와 민주, 통일을 주장하며 현 《정권》을 출범시킨 초불민심을 따르느냐 아니면 미국에 순종하느냐. 남조선당국은 이 물음앞에 립장을 명백히 해야 할 때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재침의 구실

《국기문란과 국민기만으로 얼룩진 싸드배치절차》

남조선신문이 사설 게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6일 《국기문란과 국민기만으로 얼룩진 싸드배치절차》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싸드》발사대의 추가반입사실을 루락시킨 것과 관련한 진상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고 밝혔다.

사설은 《국방부》가 《싸드》발사대의 추가반입을 미군측과의 비공개합의사항이라고 변명함에 대해 비난하였다. 외국무기가 들어오는데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사설은 단죄하였다.

사설은 미군측이 실지로 이러한 무례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국방부는 거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한민구와 김관진의 련관성을 밝히며 굴욕과 매국의 경계도 모르는 자가 요직에 있었다는 사실을 엄중히 따지고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사설은 성토하였다.

사설은 《국방부》가 《싸드》부지를 미군측에 제공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규탄하였다.

환경영향평가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싸드》배치의 정당성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설은 현 《정부》가 초불혁명으로 악폐청산을 요구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족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정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